

새바람 일으키는 아동출판의 새내기들

연륜 짧지만 빠르게 뿌리내려 ... 고유한 색깔과 철학으로 승부

어린이 출판시장에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 90년대 초반 전집물 출판사들이 잇따라 단행본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이들은 어린이 전문출판사를 표방. 신선한 기획으로 어린이책 흐름에 뚜렷한 기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동도서 출판계의 신진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출판사들은 '서당'이나 '좋은책들' 같은 어린이책 전문유통업체와 전국 각지에 있는 70여곳의 전문서점을 통해 활로를 찾고, 방문판매를 거부하고 자녀를 위해 좋은 책을 찾아나선 의식 있는 부모의 성원을 받고 있다.

어린이책을 펴내는 출판사는 3백여곳을 헤아리지만, 신홍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는 10곳 남짓. 이들은 몇가지 공통점을 지니는데, 출판경력이 짧은 새내기들이 주류를 이룬다. 또 이들은, 대상연령층이 잘게 나뉜 어린이책 가운데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적합한 책을 주로 펴낸다. 어린이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든다는 기본철학은 일치하면서도, 각각의 출판사는 고유한 색깔을 지닌 책 만들기엔 열심이다.

우리 정서의 개발과 첨단을 걷는 그림책

우선 출판사의 연륜은 짧지만, 그림책 시장에 빠르게 뿌리를 내린 출판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95년부터 어린이책을 펴내기 시작한 길벗어린이(대표 이호균)는 그림책 전문출판사로 확실하게 자리잡았다. 어린이에게 우리 예술을 소개하는 '내가 처음 가 본 그림 박물관' 시리즈와 '우리 문화 발견 시리즈' 등을 통해 53종을 펴낸 길벗어린이의 간판은 《강아지똥》.

2만부 정도 팔린 이 책은 창작동화와 그림책을 결합한 '민들레 시리즈'의 첫책권이다. 권정생씨의 동화를 토대로 정승갑씨가 그림을 그렸다. 《몽실언니》의 작가 권씨는 비오는 날 처마 밑에 있는 강아지똥이 빗물에 녹아 땅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이야기를 지었다. 정씨의 그림작업은 생각보다 늦어졌다. 강아지가 똥을 누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여러 날을 강아지 뒤꽂무니를 따라다니는데 보냈기 때문이다.

최혜숙 마케팅 과장은 "우리 정서에 맞는

연륜은 짧지만 그림책 시장에

빠르게 뿌리를 내린

어린이 전문 출판사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선한 기획과 뚜렷한

철학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이들 출판사는 각기 고유한

색깔을 지닌 채 90년대 중반 이후

어린이책 시장의 판도를

서서히 바꿔놓고 있다.

그림책을 계속 만들 생각이다. 그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빠져들고,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는 내용을 추구하겠다"고 말한다.

89년 편집기획회사로 출발해, 93년에 출판을 시작한 마루벌(대표 신대식)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필두로 앞서가는 외국의 그림책을 많이 소개했다. 지금까지 46종을 펴냈다. 그림동화·생활동화 만화·인지놀이 자료·동시 등을 한권에 엮은 새로운 형식의 그림책인 '아름다운 이야기'는 꾸준히 팔리고 있는데, 10권 합쳐 8만부 정도 나갔다. 멀티미디어에 버금가는 입체적인 편집이 뛰어난 갈리마르 출판사의 '지식의 뿌리' 시리즈는 마루벌의 기대주. 책값이 비싼 탓에 최근에는 이 시리즈보다 제인 레이의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가 많이 팔리고 있다.

88년부터 '올챙이 그림책' 등을 만든 보리기획을 토대로 하는 보리(대표 차광주)는 '보리 아기그림책'과 '옛이야기 보따리'를 펴낸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은 세밀화를 통해 자연의 전체상을 보여주며, '옛 이야기 보따리'는 할머니의 입말씨를 그대로 살린 기획물이다. 46종이 나와 있는 보리의 책 가운데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옛이야기 보따리' 둘째권인 《뽕지 닷 밭 주둥이 닷 밭》로 1만 5천부 정도 나갔다.

비룡소(대표 박근섭)의 '난 책읽기가 좋아' 시리즈는 단계별 책읽기에 속한다. 6~7세에 알맞는 1단계, 초등학교 1·2학년을 위한 2단계, 3·4학년에 맞는 3단계로 나누



신선한 기획으로 어린이책 흐름에 뚜렷한 기류를 이루는 출판사들이 주목된다. 사진은 '보림' 출판사 편집부.

고 있다. 2단계 책이 가장 많이 나와 있고, 그 가운데 이놀드 로벨의 《개구리와 두꺼비가 함께》가 인기가 높다. 3단계는 최근 출간되었는데 《파스칼의 실수》《거저먹기 외국어》《영동이 소피의 못 말리는 패션》이 한꺼번에 나왔다. 비룡소의 그림동화는 '책 읽기가 좋아'와 함께 비룡소의 핵심 시리즈 존 버닝햄의 그림동화와 최근작으로는 루스 크라우스가 글을 쓰고 마크 사이먼트가 그림을 그린 《코를 킁킁》이 많이 나간다.

박상희 기획위원은 "글과 그림이 뛰어나지 않으면 책을 내지 않는다. 완벽한 책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까다로운 기준을 밝힌다. 비룡소는 민음사의 자회사로 1세대가 문학과 인문분야 출판에서 일가를 이뤘다면, 2세대는 어린이 출판에서 일가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벌써 1백종의 목록을 거느리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종합출판사이면서도 어린이 책 출간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다섯수레(대표 김태진)는 95년 '세상을 배우는 작은 책' 시리즈를 내면서 어린이책 전문출판사로 인식될 만큼 이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에는 그림책 출판사들이 몰려 있는

서교동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다섯수레의 어린이책 목록은 주로 실용과학분야가 채우고 있다. 지능 개발을 돕는 '스티커 놀이방' 시리즈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요' 시리즈 등으로 60여종을 펴냈다.

'세상을 배우는 작은 책'도 과학같은 실제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 시리즈의 넷째권인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을까》는 글을 막 깨친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서다. 김경희 주간은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책을 만들겠다.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남의 눈치 안보고 펴내겠다"고 말한다.

시공사(대표 전재국)의 어린이책은 '네버랜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서점에서 네버랜드에서 나온 책만을 찾는 사람이 있을 정도. 외국소설·미술서적·불교서적과 함께 종합출판 시공사의 한 축을 이루는 네버랜드는 나이에 따라 '픽처북스'와 '스토리북스'로 나누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77종이 나온 픽처북스는 취학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독서수준에 따라 골라볼 수 있도록 3단계로 나누고 있다. '레벨1'은 글은 모르고 그림만 이해하는

수준. '레벨2'는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면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 '레벨3'은 어린이 혼자서 글과 그림을 이해하는 수준이다. '네버랜드'의 베스트셀러는 2만부가 팔린 버지니아 리 버튼의 《작은집 이야기》이고, 최근에는 《곰사냥을 떠나자》에 대한 주문이 많다.

나이에 따른 단계별 책읽기

최근 활약이 두드러진 어린이책 전문출판사 중에는 20~30년의 출판 경력을 지녔으면서도 발랄함을 보이는 신인 아닌 신인이 눈에 띈다. 도서출판 보림과 한림출판사가 그들.

보림(대표 권종택)은 76년 출판을 시작. 이제 성년이 되었다. 꾸준히 좋은 그림책을 만들어왔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89년 세계유아문학대전집 '위대한 탄생' 부터. 전통문화를 그림책으로 승화시킨 '술거나라'와 지난해 문화체육부 추천도서로 선정된 '전통과학 시리즈' 같은 주력권을 중심으로 1백여종만 목록에 올려 놓았다. 보림의 대표작은 '술거나라'의 《숨쉬는 항아리》로 많은 독자를 갖고 있다. 공기가 통하는 특성을 지닌 옹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옹기의 제조과정과 쓰임새를 다룬 이 책은 우리 것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일깨운다.

박상룡 주간은 방문판매의 한계를 절감하고 단행본에 주력한 것이 성공했다고 자평한다. 다양해진 소비성향에 맞춰 확립화한 전집류에서 탈피해, 기호와 취미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 성공요인이라는 것.

63년 창립한 한림출판사(대표 함기만)는 영문서적을 주로 파내는 한편으로 10년전 그림책 시장에 뛰어들었다. 부드러운 선의 터치를 활용해, 목욕하기를 싫어하는 어린이에게 목욕에 대한 친근감을 유도하는 《목욕은 즐거워》를 지난해 출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림출판사는 '한림북클럽'과 자료실 운영 등을 통해 올바른 어린이책 문화형성에 힘쓰고 있다. 북클럽은 4백여명이 가입돼 있고 자료실은 방학 때면 어머니를 따라온 어린이들로 북적인다.

어린이책 전문서점에서 신세대 부모의 주목을 받는 책을 파내는 출판사들은 기획·제작·영업 면에서 남다른 점이 있다. 보리

출판사의 차광주 사장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먼저 관점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어린이책 출판에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어린이책은 아이들에게 철학을 심어주고 자연과 벗하며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목록 다변화하고, 연령층 확대해야

어린이책 전문출판사들은 책을 만드는데 공을 많이 들인다. 자연 제작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96년에 나올 예정이던 길벗어린이의 '민들레 시리즈' 둘째권 《오소리네 꽃밭》(권정생 글·정승각 그림)이 아직 제작중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쓸 만한 동화작가와 일러스트 작가가 부족한 탓에 빠른 대응을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그림책에 대한 반응이 완만하게 오는 것도 책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는 요인이다. 93년 출간된 사계절의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는 출간 이후 꾸준한 관심을 받기에는 실패했다. 3년이 흐른 다음에야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책은 지난해에만 2만부가 팔렸다.

유통문제는 어린이책이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다. 종합출판사의 경우 어린이책을 전담하는 영업자를 두기는 쉽지 않다. 어린이책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자층의 욕구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전문마케팅도 필요하다. 어린이책 전문 유통업체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전문 유통업체 '서당' (대표 박강희)이 집계한 베스트셀러 목록과 대형서점의 그것을 비교했을 때, 겹치는 책이 한권도 보이지 않는다. 대형서점은 '스토리북' 위주이고, 전문서점은 '픽처북' 중심인 점도 확연히 드러난다.

어린이책의 판도를 좌우할 신진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어린이 책의 세대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번역서에 치우친 목록과 대상 연령층의 편중이 그것. 출판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국내 필자를 개발하고, 영아에서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책을 파내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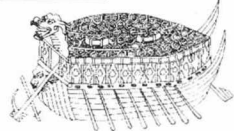
— 최성일 기자

거꾸로 읽으면
똑바로 보인다!

DOOSAN
독산출판
TEL: 853-5608
http://www.dong-a.com

누군가 찾아야 할 도둑맞은 우리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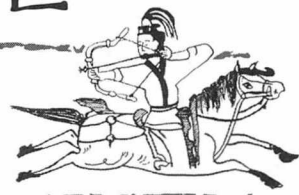
한반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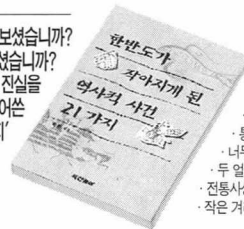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우리땅은 한반도가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삼국통일이 통일이 아니라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우리역사의 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미있고 쉽게 풀어쓴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한국사, 이제 거꾸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부터 넓혀드립니다.



박현 지음 / 7,000원

거시적 안목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수준있는 한국사

-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가 작아지게 된 첫 출발점
- 너무나 길었던 삼국시대
- 통일이 아닌 통일, 삼국통일
- 너무 편이한 두 개의 천리장성
- 두 얼굴의 과거제도
- 전통사상에 관한 서적으로만 착한 조선의 금서목록
- 작은 거리를 고백하는 까닭 등...

술을 읽으면 씩씩 들어오게
풀어쓴 현대철학 이야기

DOOSAN
독산출판
TEL: 853-5608
http://www.dong-a.com

읽기 전에는
아는 척하느라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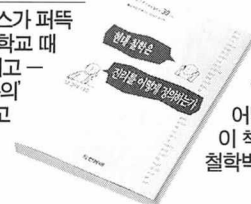
필수 핵심용어 30가지 완벽 정리

현대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읽은 후에는
아는 척하느라
바빠졌다!



철학자라면 소크라테스가 퍼뜩 떠오르고, 철학자라면 고등학교 때 배운 상식 수준이고 - 누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운운할 때면 중간이나 가려고 침묵을 지키시던 분들을 위해.



현대 철학자 30인의 철학적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현대 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 이 책 한 권이면 당신도 철학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경태 지음 / 6,800원

- 마르크스/잉여가치
- 니체/권력의지
- 프로이트/무의식
- 소쉬르/기표와 기의
- 후설/판단중지
- 레닌/약한 고리
- 융/집단 무의식
- 아인슈타인/상대성
- 케인스/유희수요
- 바슐라르/인식론적 단절
- 루키치/계급의식
- 하이데거/현존재
- 그람시/헤게모니
- 라캉/욕망
- 아도르노/계몽
- 사르트르/자유
- 브로델/장기 지속
- 비트겐슈타인/언어 게임
- 하이젠베르크/불확정성
- 레비스트로스/심층구조
- 바르트/신화
- 알튀세르/이데올로기
- 쿤/패러다임
- 리오타르/포스트모던
- 들뢰즈와 가타리/욕망
- 푸코/지식-권력
- 보드리야르/사뮈엘라시옹
- 하버마스/의사소통
- 데리다/해체
- 부르디외/아비투스